

정주목회란 무엇인가?

차 흥 도(목사,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들어가면서

‘생명·영성·공동체’를 지향하는 농촌선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들이 보이고 있으며 그 뿌리내림이 느껴지고 있다. 당면한 농촌선교의 과제가 여럿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중 주요한 과제를 집으려면 농촌목회자의 정주목회(定住牧會)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정주목회가 감리교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미 기독교 전체의 농촌선교에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주목회란 무엇이며 오늘날 왜 정주목회가 화두(話頭)처럼 떠오르고 있으며 정주목회를 하기 위한 과정과 그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주목회, 어떻게 시작되었나?

1) 무력한 농촌교회

UR투쟁이후 무너지는 농촌을 바라보면서 농촌교회의 무력감

을 느꼈다.¹⁾ 시골 마을 마을마다 십자가가 올라서 있건만 농촌 교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리(里)단위 마을마다 있는 것은 교회뿐이건만²⁾ 농촌교회는 농촌을 살리기는커녕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교회는 농촌에 있건만 자기의 터전인 농촌에 관심이 없었고 더군다나 농촌목회자들은 2-3년을 단위로 바뀌었다. 이른바 ‘정거장목회’였다³⁾. 많은 이들이 농촌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건만 대부분이 안수 받으면 떠난다는 생각들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안수 받으면 다들 떠나갔다. 교인들도 새로 온 전도사에게 정을 주지 않았고 마을사람들은 더 했다. 으레 ‘떠날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농촌을 거쳐간 많은 선배목회자들도 그들이 했던 농촌목회기간을 진정한 목회라기보다는 오히려 목회를 배우고 익히게 한 수련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농촌목회를 하고있는 후배들에게 조언하길 “농촌에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성경 많이 보고, 다음에 목회할 때 그것보다 큰 자산이 없어”라든지 “농촌에 있을 때 영어공부 열심히 해줘. 이제는 영어 모르면 시골에서 할머니들 데리고 목회할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쉽게 한다.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 1) 3개교단(예장,기장,감리교) 농목을 중심으로 매년 서울에서 기도회를 하였고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곤 하였으나.....
 - 2) 행정기관을 비롯한 어떤 기관도 리단위마다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자면 농촌교회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면 굉장한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정거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기 위한 중간 기착점일 뿐이다. 그런데 농촌목회가 도시로 목회지를 이동하는 중간기점으로 활용된다고 하여 ‘정거장목회’라는 자조적인 별칭이 붙게 되었다.
 - 4) 말의 행간을 되새겨보면 농촌목회를 목회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도시나 큰(예산이나 건물이)교회로 가기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 동부연회 농촌선교특별위원회 구성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들은 10여 년 전부터 매 연회 때마다 동부연회에 농촌선교의 필요성과 연회의 대안을 요구하였다.⁵⁾ 매년 연회의 관심을 촉구해온 우리⁶⁾는 1994년 4월 동부연회에서 농촌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연회차원의 농촌선교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연회는⁷⁾ 감독직속의 농(어, 광산)촌선교특별위원회⁸⁾의 구성을 결의해주었다.⁹⁾ 그 후 위원회는 1년 동안의 연구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출하였다.

- 농촌선교에 소망있다.
- 농촌선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목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정착적인 목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정주목회(定住牧會)라 명한다.
- 정주목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농촌교회 실태조사를 한다.
- 농촌의 미자립교회를 위한 자립방안을 모색한다.

5) 감리교의 행정단위는 총회, 연회, 지방회, 구역회, 당회이다. 즉 총회는 전국단위이며 연회는 도단위인데 동부연회는 당시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관장하였으며 교회수로는 약 칠백여교회였다.

6) 이 글에서 ‘우리는’ 넓은 의미로는 농촌선교 관계자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감리교 농목을 의미한다.

7) 이때 당시의 감독인 이석희감독(청주제일교회)의 결단이 위원회를 구성케 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8) 동부연회는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포괄하기 때문에 광산촌과 어촌의 문제를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9) 위원회의 구성은 농촌교회대표 3, 어촌교회대표 1, 광산촌교회대표 2, 도시교회대표 2로 구성되었으며 매 모임에 연회총무가 참석하였다. 도시교회의 대표를 포함한 것은 이미 농촌선교는 농촌교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도시교회와 함께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는 농촌선교의 양측으로 도시교회는 농촌선교의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고 농촌교회는 일선에서 농촌선교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정주목회 훈련생 모집

농촌선교특별위원회¹⁰⁾는 정주목회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그 해 겨울에 감리교신문에 냈다. 정주목회를 하고자하는 농촌목회지는 연회가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감리사를 경유하여 연회본부에 제출토록 하였다.

첫째, 본인의 농촌선교에 대한 소명서

둘째, 10년 이상의 장기 목회 계획서

셋째, 지역조사서

넷째, 교회의 임원동의서¹¹⁾

모두 8명의 목회자가 지원했고 연회는 이들을 정주목회 훈련생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1년 동안 분기별로 열흘씩 훈련여행을 떠났다. 생명·영성·공동체의 방향 속에 이루어진 교육은 이들을 변화시켰다. 이들은 유기농을 하는 농민들을 찾아갔으며, 모범적인 농촌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을 찾아가 배웠다. 모두 4차에 걸친 훈련¹²⁾은 이들의 소망을 더욱 확신케 하였으며 더욱 더 농촌선교에 매진케 하였다.

2. 왜 정주목회인가?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목회를 하려 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목회자리가 부족한 현실은 어려운 농촌교회라 할

10) 이하 특위로 줄임

11) 이 조항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첨가되었다. 기존의 목회와는 다른 유형의 목회스타일에 교회임원들이 반발하여 정주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인사이동을 요구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12) 『동부연회와 농촌선교』(정주목회자 교육훈련프로그램),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농촌선교훈련원, 1997. 참조바람

지라도 서로를 가려고 한다.¹³⁾ 특히 감리교의 경우에는 3년간 단독목회를 해야 목사안수를 주기 때문에 첫 목회를 대부분이 농촌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나 농촌선교에 소명을 갖고 내려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내려온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든 농촌목회자들은 대개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목회를 한다.

1) ‘몸은 농촌에, 마음은 도시에’ 형

이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내려온 이들이다. 농촌 목회에 대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들의 몸은 농촌에 있으면서도 목회의 형태는 대부분 도시목회적 특성을 그대로 하고 있다. 예배형식이나 목회계획 그리고 설교나 심방 등에 있어서 도시교회와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겉은 농촌교회인데 속은 도시교회다. 이들은 시간만 나면 도시로 가며 또는 도서관으로 피신하고¹⁴⁾ 또한 볼링장으로 놀러간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로 가려고 하고 서울로 가려고 하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출세지향적이며 머리가 똑똑하여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고하고 먹고사는 데 지장들이 없다.

2)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허약해’ 형

이들도 아무런 준비 없이 농촌목회에 뛰어든 형태이다. 이들은 농촌현장에 발을 디디고 보니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죄짓는 것 같아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때론 실

13) 다양한 현대사회에 맞는 목회형태가 필요하다. 즉 전통적인 지역목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회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의 수련목제도중 사회선교분야는 보다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농촌선교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14) 도시로 갔다올 형편이 안될 경우엔 지역주민과 교인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대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다. 목회자의 지적욕구가 발동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속심은 피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천도 한다. 그러나 그 ‘무언가’를 몰라 방황하며 혹은 알면서도 ‘나는 아니야, 달란트가 달라, 어차피 도시로 나갈 것’이라는 논리로 자기는 농촌에 맞지 않는다면 합리화한다. 이들은 몇 번은 논에도 나가봤고 밭에도 나가 콩도 심어보고 고추도 따봤다. 그리고 몇 차례 직거래도 해봤지만 이들은 스스로가 농촌에 맞지 않으며 목사는 이런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회귀의 명분을 갖는다. 이들은 주변 동료나 후배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할 때 “나도 다 해봤어. 그렇지만...” 하면서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며 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모른다. 이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행한다. 최근엔 목회지의 부족으로 도시로 나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들도 농촌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몸도 마음도 농촌에’ 형

이들의 시작은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이들도 앞선 두 유형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내려온 형태와 처음부터 농촌선교의 소명을 받아 준비하고 내려온 형태이다. 준비 없이 내려 온 이들도 농촌의 열악함과 농민의 소외됨에 충격을 받고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 무엇보다도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한다. 농촌과 농민에 맞는 목회를 하려한다. 예배형식과 설교, 심방 등이 농촌의 정서에 맞는 것으로 변화를 준다. 교회건물도 농촌에 맞는 민족의 전통적인 양식을 택하며 노동을 천시하지 않아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린다. 이들은 농민을 대상으로서 여기지 않고 진실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섬긴다. 이들은 교회가 지역에 있음을 깨닫고 지역적 역할과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탁아소, 공부방, 노인교실, 생명농업, 공동체운동, 농민운동 등등 이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다. 이들은 주어진 임지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임지라고 확신하고 도시로 떠나려 하지 않는다. 정주목회를 하려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농촌목회자들은 대부분 도시목회형 목회를 한다. 도시목회형 목회의 핵심은 성장주의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이념이다.¹⁵⁾ 수만 혹은 수십, 수백만 명에 이르는 도시에서의 목회와 마을 전체를 합쳐야 수십 여 호 일 뿐 그나마도 다들 60이 넘은 노인들이 사는 농촌에서의 목회는 접근하는 방법과 자세에서부터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농촌에서도 도시형목회를 하며 보다 큰 교회¹⁶⁾를 선망하고 있다.

이들의 가슴은 크고 넓어서(?) 좁은 시골을 견디지 못한다. 이들의 비전은 크고 웅대하여서(?) 작은 농촌교회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시골을 떠난다.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해야할 일도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교회를 떠난다. 이토록 작은 교회¹⁷⁾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떠날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골에 남아 할머니들 몇 분 정도만 섬길 수밖에 없는 농촌교회의 목회자들은 참으로 무력한 자들이 된다. 남아 있는 자들은 자식교육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된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했건만 남아 있는 자들은 자식들 교육을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골에서 시키려 한다. 참으로 능력이 없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이들만 남는다.

으레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되면 시골교인들은 전도사가 떠날

15) 교회의 성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장이데올로기”에 매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착은 한국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16) “저사람 큰 사람이야” 할 때의 크다는 개념은 인격이 성숙하고 넓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교회는 큰교회야” 할 때는 이와 다르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고 그 구성원들의 신앙이 성숙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예산과 건물만이 크다는 개념이다. 이하 같은 개념으로 이 말을 사용할 것이다.

17) 위와 같은 개념으로 예산과 건물이 작은 교회를 의미한다.

줄 안다.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주지 않는다. 곧 떠날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을 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쥐었는데 마음이 오고갈 때쯤이면 늘 떠나곤 했다. 이런 지경에 목회가 가능한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면 모를까 평범한 목회자라면 형식적인 예배와 만남은 가능하겠지만 진정한 목회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래서 정주목회가 필요하다. 몸만 왔다가 가는 시간만 때우는 목회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그리스도안에서 만나며 하나 되는 그리하여 위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목회가 필요하다. 교회라는 거룩함을 벗어 던지고 지역농촌사회 속에 녹아지게 하는 목회, 교인과 비교인을 나누지 않고 서로의 땀 속에서 참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주고받는 목회, 무너져 가는 마을공동체 속에서, 그 속에서 누룩이 되고자 하는 참다운 정주목회가 필요한 것이다.

3. 훈련과정은?

정주목회는 현재 3기를 배출하였다. 한 기의 훈련과정은 일년에 분기별로 4번 훈련여행을 떠나며 다음해는 지원하는 해이다. 그 중 첫 기수인 1기의 훈련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 훈련일정

1차 프로그램 (전라도지역)

일 시 : 1996년 6월 26일(수) - 7월 5일(금)

가는 곳 : 동광원 (남원 본원, 화순 분원, 광주 귀일원)

강대인 선생 (별교, 정농회 부회장, 벼농사)

한마음공동체 (장성 백운교회에서 하는 생산공동체로 남상도 목사가 대표)

정경식 선생 (부안, 한울공동체 대표, 밭농사)

임실제일교회 (심상봉 목사, 예장농목 초대회장)

2차 프로그램(경상도지역)

일 시 : 1996년 10월 6일(일) - 10월 12일(토)

가는 곳 : 강문필 선생(봉화, 발농사)

정호경 신부(봉화, 가톨릭농민회 초대 지도신부)

전우식 선생(안동)

생명공동체(안동, 가톨릭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생협형태의 소비자, 생산자공동체)

김영원 장로(의성, 유기농가, 기독교농민회 2대회
장)

천규석 선생(대구)

간디학교(산청, 대안학교로 당시 준비과정에 있었
고 양희규 선생이 대표)

3차 프로그램(일본)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 12월 11일(수)

가는 곳 : 지바 생협(지바,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생협)

대지를 살리는 모임(동경)

지바교회(한인 감리교회)

아세아농촌지도자학원(도찌기겐, 유기농과 공동체
교육)

오와공동체(기독교생활공동체, 기꾸다목사가 대
표)

다지리교회(고꾸보목사)

고리아마시민생협

이시자와 선생(애농회 대표)

일본농촌전도신학교

4차 프로그램(경기, 충청)

일 시 : 1997년 2월 10일(월) - 2월 22일(토)

가는 곳 : 충주 한울공동체(예장, 한청재 목사)
 휴살림연구소(이태근소장)
 최재명 선생(음성, 우렁이 농법 창시자)
 김복관 선생(정농회 회장)
 한국신학연구소(병천)
 주형로 선생(홍성, 벼농사)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홍성)
 야마기시즈 실현지(화성)
 떼제공동체(한국지부)
 원경선 선생(풀무원 창시자)
 오재길 선생(정농회 고문)
 정상목 선생(양평)
 이제욱 선생(춘천, 귀농 사례)
 시골교회(화천, 임락경 목사, 장애인공동체)

그런데 목회는 남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농촌목회는 더욱 그렇다. 농촌목회의 60%이상은 목회자 부인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하였고 목회자 부인들만의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었다. 일주 간의 프로그램으로 목회자들의 1차 프로그램을 약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¹⁸⁾

2) 정주목회 훈련의 원칙

그런데 걱정은 훈련에 참가한 목회자들이 대개 비판적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사회와 교회의 모순에 직면했던 이들은 대개 사회와 교회의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이들이었다. 이들의 비판적 의식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모자란 점들을 끄집어내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훈련을 받으러간 우리가 그곳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18) 『동부연회와 농촌선교』 참조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원칙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배우러 간다.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한다.” 교육과 훈련은 배움¹⁹⁾의 터이다. 배우러 간 이들이 그 내용에 비판적이라면 그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가치를 말았어야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 내용을 잘 배워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 원칙은 과정 내내 강조되었으며 삶의 자세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새벽에는 숨쉬기²⁰⁾와 성서나눔²¹⁾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하루의 평가²²⁾와 숨쉬기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정주목회 훈련은 진행되었다.

4. 정주목회의 신학적 의미는?

1) 가난함의 목회

정주목회는 가난함을 지향한다. 즉 이 세대의 가치관인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양(止揚)한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을 물질로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이다. 맘몬

19) 배움은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진짜 공부이다.

20) 숨은 하나님의 영이고 기운이다(창2:7).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다 숨을 쉬어도 불구하고 자신이 숨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훈련 초기엔 3분부터 시작하여 훈련과정 마지막 즈음엔 약 1시간을 하였다. 이 숨쉬기로 몸과 마음의 분리됨을 알아차리는 훈련(알아채기와 벗어나기), 다시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훈련(집중하기) 등을 하였다.

21) 성서나눔은 구약과 신약을 한 장씩 읽으며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느껴진 말씀을 묵상하고, 왜 그 말씀을 내게 주었는지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었으며,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여 하루동안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 말씀에 대비하여 풀도록 하였다.

22) 평가도 비판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고 깨달았는가”를 나눴다.

이 하나님보다 더 숭상되며 실질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²³⁾ 인간이 보다 편리하고자 한 욕구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더욱 발전시켜 왔으며 이런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성장과 개발’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갖게 만든다. 성장과 개발은 인간에게 안락함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근원적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생태학적 문제는 다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²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의 살림살이를 줄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 처한 삶에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더욱 더 풍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고 순환하는 유기적 사회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런 사회는 스스로 가난함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로움과 신앙의 풍성함을 함께 가지려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 6:24)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길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느 부자 청년에게 이르길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

23) 멀리 있는 법보다 가까이 있는 주먹이 더 위력적이라는 사회풍토를 생각해보라

24) 성장과 발전의 논리는 세계 각처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삼림을 없애고, 대량생산과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 등등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현상, 삼림파괴, 산성비 등은 우리 인류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막10:17-27) 하셨다. 재물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정주목회는 바로 이 길을 가려고 한다. 이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가난한 이들이 가는 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눅 6:20)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목회가 바로 정주목회이다.²⁵⁾

다들 떠나가는 텅 빈 들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목회자들도 보다 나은 자리, 보다 편리한 도시, 보다 좋은 곳으로 떠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빈 농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농민들과 같이 울고 웃고 땀흘리는 보다 가난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²⁶⁾

2) 신토불이의 목회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신은 생태적 세계관의 토대이다. “몸과 흙이 둘이 아니다”²⁷⁾라는 사상에서 오늘날 제기되는 여러 가

25)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목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인데 왜 너희들 맘대로(인간의 뜻) 스스로 결정하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목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목회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왜 정주목회가 시작되었으며 이 정주목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신선히하며 기대를 걸고 있는가를 간과하고 있다. 즉 오늘날 농촌교회가 처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2000년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심’을 열린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의 눈으로만 보았던 일부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26) 우리는 그동안 문제제기에는 익숙해 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대로 살려고 하지는 못했다. 가난함의 목회는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며 우리는 이렇게 제시된 대안적 삶과 목회를 하려는 것이다.

27)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고(창2:7)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하신 말씀은 바로 이 신토불이의 정신을 보여 준다.

지 생태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둘로 나누는 세계관’이 오늘날의 문제를 야기했다면²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되는 세계관’이 요구된다.²⁹⁾

선악(善惡)을 판단치 않게 되면 우선적으로 성속(聖俗)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다. 즉 교회는 지역과 분리된 또 다른 무엇이 아니며 지역 속에 있으며 지역과 하나되는 것이어야 하며, 목회자는 평신도와 다른 별종이 아니며, 평신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다만 서로가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하여 맡은 역할만이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악을 판단치 않게 되면 우열(優劣)을 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름은 차이일 뿐 틀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름으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는 풍토가 일반사회뿐 아니라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존재한다. 정주목회는 이렇듯 교회와 교회가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목회를 지양하고 서로가 달리 부름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 길을 엿보며 비판하고 따라잡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가는 목회이다.

정주목회는 이 길을 가는 목회이다. 물질적 어려움보다는 존재자체의 기쁨과 감사로 지역에 녹아지고자 하며 평신도와 역할의 다름을 차별치 않고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는 목회이다.

28) 선악과의 비유(창3)는 ‘둘로 나누는 세계관’의 기원을 설명한다. 오늘날 현대문명은 바로 이 둘로 나누는 세계관의 연장이며 ‘선악과’의 후예들이다.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그것이며 이 점에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둘로 나누는 세계관’의 일관성 쌍생아일 것이다.

29)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창1:31)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회복하기 힘들겠지만 그 세계관을 다시 가져 “다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본디 처음 세상엔 선악의 구별이 없었다. 선악의 근원이 같았으며 이를 인간이 나뉘어 오늘의 세상을 만들었다. 선악을 판단치 않고 분별지(分別智)를 갖지 않는 일이 필요하다.

3) 생명목회

정주목회는 생명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땅이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 가는 현실 속에서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농업을 실천하는 목회가 정주목회인 것이다. 온갖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제초제로 인하여 산성화되고 죽어 가는 땅을 되살리기 위해선 3-5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주목회는 장기목회여야 한다. 안수 받고 떠나가는 정거장목회로서는 땅을 살리고 땅과 하나되는 목회를 할 수 없다. 농심(農心)을 잃어버린 농촌³⁰⁾에서 농심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농업이며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도구가 생명의 목회인 것이다.

흙은 우리의 근본이며³¹⁾ 흙과 가까워지는 것이 생명의 근원과 하나되는 길이다.³²⁾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려내는 것³³⁾이 흙의 영성이며 우리의 근본됨이다. 판단치 않고 받아들이는 목회, 죽임의 세계에서 살림의 세계로 전환하는 목회가 바로 정주목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주목회는 단순히 한곳에 오래 있다고 하여 정주목회라 부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계관에 의

30) 농심은 신토불이의 정신에서 나온다. 땅과 내가 둘이 아닐 때 비로소 농심은 회복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요즈음의 화학농법으로 짓는 농사는 이미 농심을 잃어버렸다. 땅과 자신을 분리하기 때문에 자신인 땅에다 온갖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제초제를 퍼붓는 것이다. 만일 땅과 자신이 둘이 아니라면 자신의 몸에다가 그런 독약을 퍼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이렇듯 농민에게서 농심을 빼앗아 가고 있다.

31) 창3:19

32) 옛부터 깨달은 이들은 소위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며 진리를 추구하였다. 공자는 이들을 은자(隱者)라 부르고 쉽게 대하지 아니하였다. 기독교의 수도원운동도 이와 같은 길이다. 대부분의 수도자들의 일상은 기도(명상)와 노동(농사)이다.

33) 흙은 땅이건 오줌이건 간에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 속에서 소화시켜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기운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이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여 자신을 버리고 다들 떠나는 농촌에서 땅을 일구며 소의 받는 농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목회가 정주목회인 것이다.

나오면서

그 동안 정주목회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은 약 30명이다. 이들 중 4명이 도시로 목회지를 옮겼으며 또 다른 4명이 농촌으로 목회지를 옮겼다.³⁴⁾ 그리고 정주목회훈련을 받지 못한 못하였지만 농목의 변화과정에 참여해온 많은 농목회원들이 이미 정주목회를 시작하고 있다.

정주목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새롭게 역사하심이다. 이 일에 농촌목회자들은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주목회훈련은 지속되어야 하며³⁵⁾ 가급적 범교단적으로 실시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34) 정주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므로 또한 새로운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는다. 도시로 간 이들도 정주목회의 정신을 도시에서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5) 그동안 동부연회와 충북연회에서 실시되던 정주목회훈련과정은 내년부터 전 연회적으로 실시하려 하며 그 경비는 참가자의 수만큼 연회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